

중국, 가정법회 여는 불자 늘고 있다

영국 BBC, 중국인 불교신행활동 소개

공산당과 종교는 흔히 병립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헌법에 명시한 공산주의 국가들도 없지 않다. 종교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는 중국이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현지에서 불교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

영국의 국영방송 'BBC'가 지난달 1월 29일 공산당 고위직에서 은퇴한 후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샤오 우난(Xiao Wunan · 50)의 초청으로 그의 집을 방문, 당일 샤오의 저택에서 봉행된 가정 법회를 참관하고 보도해 주목된다.

(BBC)는 "샤오는 이날 젊은 사업가 순 케지아(Sun Kejia · 35) 등 6명이 참여한 가운데 티베트 스님의 집전으로 가정법회를 봉행했다"며 "이날 법회가 열린 방에는 달라이 라마 초상과 티베트 불교의 탕카가 걸려 있었다"고 전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중국 정부로부터 '위험한 분열주의자'로 낙인이 찍혀 있다. 따라서 티베트 스님은 그의 사진을 가지고 다닐 수 없고, 티베트 사원 역시 그의 사진을 봉안하지 못한다.

(BBC)는 샤오의 말을 인용, "중국에는 티베트 불교에 관심을 보이는 엘리트 불자들이 많다"며 "그들 대부분 집에 개인 불단을 만들고 티베트 스님을 초청, 가정법회를



샤오 우난(Xiao Wunan · 50)과 순 케지아(Sun Kejia · 35) 등이 계세 소남(Geshe Sonam · 티베트) 스님의 집전으로 가정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순 케지아(Sun Kejia · 35)이 도반을 초청, 계세 소남(Geshe Sonam · 티베트) 스님의 집전으로 자신의 집에서 가정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신용감부 등 중심으로 개인불단 조성·가정법회 열어 불교귀의 늘지만 기록성향 강해 중국정부의 이해·관용 담보될 때 중국불교 순기능 발휘될 수 있어

마와 오바마 대통령이 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조찬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는 한다는 소식을 전해진 직후 이 같은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중국 현지에서 중국 엘리트들이 달라이 라마의 사진을 봉안한 채 가정법회를 봉행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셈이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중국 엘리트들의 신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행과는 다르다.

"부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전제된 순 케지아는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불교가 심신의 안정을 찾아주는 데 적절한 도움을 주었다"며 "내게 도움을 주는 종교라면 불교나 기독교나 모두 소중한 종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최근 중국의 도덕적 완성을 꾀하고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에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전제된 (BBC)는 "그

런나 중국이 종교의 자유라는 인류 보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국가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중국사회과학원 류평(劉澎) 연구원의 말은 인용, "중국의 현 종교 정책이 신앙의 수요가 늘고 있는 현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가 직시하고 있지만, 종교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의 종교 신자 수는 3억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샤오 우난과 순 케지아 등의 가정법회를 집전하고 있는 계세 소남(Geshe Sonam) 스님은 "중국의 엘리트 불교가 올바른 불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중국 정부가 불교 등 종교에 대해서 관용과 이해를 담보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중국 불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미얀마, '로힝야족' 용어사용 문제제기

대통령실 성명서 발표 '명백히 반대'



미얀마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도들은 로힝야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얀마 정부도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에서 유입된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며 이들을 벵골인들로 지칭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가 유엔 관리가 미얀마 내 박해 받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의 명칭을 공식 언급한 데 대해 비난했다.

미국의소리(Voice of America) 2월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양희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이 로힝야족을 거론한 것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논란을 빚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려는 길에 장애를 설치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양희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미얀마를 방문해 락한 주에서 로힝야족 시위대를 만나는 등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인종차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미얀마 언론 DVB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양희 특별보고관이 미얀마를 방문할 당시인 1월 16일, 불교 지도자 아신 위라 투 승려는 양곤의 한 광장에서 열린 '이양희 UN인권보고관 방문 항의' 시위 현장에서 연설하며 "미얀마는 이미 인종보호법을 마련해 소수민족들의 인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 년(미얀마어로 'kaungma')이 우리나라의 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위라투 승려의 이 같은 발언은 미얀마의 소수민족 인권문제에 UN이 개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불교 승려 등 라카인주 주민들은 1월 8일 이양희 보고관이 시트웨 공항에 도착하자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미얀마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도들은 로힝야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얀마 정부도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에서 유입된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며 이들을 벵골인들로 지칭하고 있다.

대부분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은 미얀마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주류인 불교도들로부터 최근 수년 간 박해를 받아왔다.

미얀마에 머물고 있는 로힝야족은 1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종교적 박해와 인권침해로 인해 미얀마를 탈출하는 이들의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FP에 따르면 지난 해 말 한때에는 하루에 900여명 꼴로 로힝야족 인구가 미얀마를 떠나기도 했다.

이번에 막발 파문을 일으킨 위라투 승려는 미얀마에서 반(反)무슬림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극단적인 민족주의 성향의 종교 지도자로 알려져 있으며 동남아시아 현지 언론들은 그를 '반무슬림 선동가'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2월 3일 미얀마 의회는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로힝야족에게 국민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화통신은 2월 3일 미얀마 연방 의회는 임시 신분증인 이른바 '백색 카드' 소지자들이 헌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결정은 의회가 지난달 19일 재개된 헌법 개정안, 이와 관련한 국민투표 등에 대해 심의 중인 가운데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백색 카드 보유자에 대한 국민 투표권 부여에 반대했다. 백색 카드 소지자는 약 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대부분은 서부 라카인 주에 거주하는 로힝야족들이다.

로힝야족 등 백색 카드 소지자는 지난 2010년 실시된 총선에서 투표권을 부여 받았으나 올해 10~11월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선에서도 투표권을 인정받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나는 기자 oas1983@hyunbul.com

캄보디아, 최대 불교축제 '메악보체' 열어

칸달(Kandal) 우등산 자락...4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

캄보디아 최대 불교 축제인 메악보체(Meak Bochea)가 2월 4일 캄보디아 우등(Oudong)산 자락에서 열렸다.

(Cambodian Daily)지는 2월 4일(현지시간) "메악보체 축제가 칸달(Kandal) 우등산 자락에서 임찰리(Yim Chhayly) 부총리를 비롯해 인도·태국·베트남 대사 등 4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보도했다.

메악보체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법을 처음으로 설한 날'로, 캄보디아 정부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 공휴일로 재정의했다.

이날 축제의 서막은 우등산 자락에 펼쳐진 넓은 평원에 비구·비구니 스님의 행렬이 도착할 때인 정오를 기점으로 열렸다.

우등산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북서쪽으로 40km 남짓한 거리에 있는 나지막한 산이다. 우등은 산스크리트어로 '최고

를 뜻하는데, 고대 캄보디아의 수도였다. 우등산의 유일한 탑에는 부처님 치아사리와 진신사리 각 한 기씩 두기가 봉안되어 있다. 이는 캄보디아 최대 불교명절인 메악보체 축제를 우등산 자락에서 여는 까닭이다.

우등산 스투파에 봉안된 치아사리와 진신사리는 2013년 도난당했다가 다시 되찾았다. 이후 사리는 프놈펜 국왕 관저에서 보관되어 있다.

캄보디아 지역문화·종교부 롱 페롬(Rong Phearum) 장관은 "우등산 스투파의 사리는 2013년 도난 사건이 해결되면서 국왕 관저로 이운되었지만, 부처님의 진신사리의 원 봉안처라는 상징성으로 사리를 도난당한 직후에도 빼놓지 않고 우등산 자락에서 메악보체 축제를 봉행하고 있다"며 "이는 크메르인 모두가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에 깊은 경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



캄보디아 스님들은 메악보체 기간 동안 불자들에게 음식이 아닌 돈을 보시 받을 수 있다.

문"이라고 설명했다. (Cambodian Daily) 지에 따르면 메악보체 축제는 캄보디아 불교계의 두 거대 종파인 모하니카야(Mohanikaya)와 담마유쓰(Dhammayuth)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심신을 키우는 데 중요한 자리가 되어 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젊은 세대들의 관심

을 앞선 세대의 전통으로 돌리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전제한 앙 콜린(Ang Choulean · 왕립대학 미술학) 교수는 "청년들, 특히 도심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메악보체 축제는 캄보디아 특유의 불교 전통을 보여주고, 그들의 심신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더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폭잠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유 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야야! 쾌면, 숙면, 꿀잠
-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 ▶목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음, 낮은 베개는 버려라
-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파곤, 건강 NO
-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할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 ▶침대에 쓰러지면 위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베개 치유
-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임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완성! 심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범왕정사.net
010.3487.0035

제9기 송강범음범패 전승회 수강생 모집

전통범음범패 의식에 관심있는 학인들을 모집합니다.

- ▶ 개강일시 : 2015년 양력 3월 6일 입교시작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하루에 총 8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 처음 입학시에는 한번 내는 입학비가 20만원 입니다.)
- ▶ 형 식 : 수료 1년과정, 무료특강 (2년 코스), 기본수업이 오전 9시부터 ~ 오후 2시까지 이고, 그 외에 타임은 교양과목입니다
- ▶ 교육장소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영평사도량 내(內) "중앙불교대학" 3층 강의실)
- ▶ 수강자격 : 불교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
- ▶ 교육내용 : ① 아침예불 / 조성 ② 사물다루는 법 (목탁, 요령, 북, 태징) ③ 49재의식 (천도재의식) ④ 천수바라 나비춤 (도랑계 / 다계)

☆ 교육특강 ☆

- ▷ 오후 2시 ~ 3시 범고무 - 문곡스님
- ▷ 오후 3시 ~ 4시 명리 - 해각스님
- ▷ 오후 4시 ~ 5시 태평소(호적) - 시우스님

• 문의전화 : ☎ 회장 관희 010-8290-6623
강주 문곡 010-3727-0870
총무 진효 010-5306-0856

www.송강사.kr/
松江汎音梵唄 전승회 會長 관희 합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압박성 등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질식사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